

파렴치 전 도의원, 지적장애인 '축사노예' 착취

축사·농장일 시키며 10년간 무임금에 기초연금까지 가로채 암 투병 속 산소공급기 휴대한 채 일하던 60대 경찰이 발견

장성경찰 전 도의원 입건

인지능력이 부족한 60대 지적장애인에 게 10년간 축사와 농장에서 일을 시키고 임금을 한 푼도 주지 않은 전직 도의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10년간 사실상의 노예 생활을 한 피해자는 경찰에 발견 당시 암으로 투병중이었으며, 휴대용 산소 공급기를 몸에 지닌 채 농장 일을 하고 있었다. 무임금으로 일을 시킨 전직 도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리 분별력이 없는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주고 합의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성경찰은 26일, 10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축사와 농장 일을 시키며 노동력을 착취하고 기초연금까지 가로챈 혐의(준사기)로 오모(6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06년부터 지적장애인 A(67)씨를 데려와 곡성과 장성에 있는 자신의 농장 2곳에서 축사 및 조경, 농작물 재배 등 막일을 시키면서 최근

까지 10년간 1억원(최저임금 기준)이 넘는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또 A씨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지난해부터 지급된 기초연금, 생계·주거급여 등 210만원을 무단 인출해 가로채고, 식도암 치료비 명목으로 A씨 명의의 눈이 있던 돈을 팔게 한 뒤 대금 35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는 전남도의회를 역임하고 군수 후보까지 거론됐던 인물로 드러났다.

오씨는 보일라도 없고, 가스 공급이 중단된 폐가와 같은 숙소에서 A씨를 생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먼지와 곰팡이로 얼룩지고 악취가 심한 숙소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로 라면과 같은 음식을 조리해 끼니를 해결했으며, 한겨울에도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 생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생활은 인간의 삶이라 볼 수 없을 정도로 참담했다"며 "제대로



10년간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한 60대 지적장애인이 생활한 숙소. 이 장애인은 곰팡이가 피고 악취가 나는 숙소에서 한겨울에도 전기장판에 의지해 생활했다. <장성경찰 제공>

된 장애 판정은 받지 못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 외에는 숫자 개념조차 없을 정도로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형수와 함께 순창에서 생활하고 있던 A씨를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월 순찰을 하던 중 장성군

한 농장에서 비를 맞고 일하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발견 당시 식도암과 폐렴으로 숨을 거칠게 내쉬며 건강이 악화한 상태였고, 몸에는 휴대용 산소 공급기를 지니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에서 "먹여주고, 재워줘서 너무 고맙다"며 "매달 수십만 원을 받기로 했지만 적금을 들어주고 있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해 A씨를 순창의 한 요양병원에서 보호하면서 27년 전 이혼 후 헤어진 아들 2명을 찾아냈다. 현재 A씨의 건강상태는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성경찰은 지난 20일 광주지검에 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불구속 수사 지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유독약품 새우양식장 공급하고 병든 새우 시중 몰래 유통하고

서해해경, 무더기 적발

국내 유통이 금지된 유독물질을 치료제로 속여 새우양식장에 공급한 업자와 이를 사용한 새우양식업자, 병든 새우를 시중에 유통한 유통업자가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26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국내 수입과 판매가 금지된 유독물질 트리플루랄린이 함유된 약품을 태국에서 들여와 새우양식장에 공급한 혐의(화학물질 관리법 및 약사법 위반 등)로 박모(68)씨 등 약품 공급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사용이 금지된 이 약품을 구입해 새우 양식에 사용한 혐의(화학물질 관리법 위반)로 양식업자 김모(55)씨 등 여업인 20명과 병든 새우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수산생물질병관리법 위반)로 유통

업자 최모(55)씨 등 10명도 입건했다.

박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트리플루랄린이 든 약품을 수질 정화제로 위장시켜 김씨 등 양식업자에게 1ㄷ 짜리 7500병을 팔아 1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흉보 전단까지 제작해 유독물질이 든 이 약품을 '새우 어병(魚病)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양식업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우양식업자들은 사용이 금지된 약품을 구입해 새우양식장에 사용한 혐의, 유통업자 최씨 등은 병든 양식 새우 870kg을 폐기하지 않고 시중에 몰래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박씨 등에게 약품 구입을 의뢰한 새우양식업자 35명의 명단도 확보해 수사 중이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제사 뒤 귀가길 교통사고

남편 숨지고 아내 중태

제사를 지내고 새벽에 귀가하던 노부부가 교통사고를 내 남편이 숨지고, 아내가 중태에 빠졌다.

26일 곡성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55분께 곡성군 검면 평장 삼거리에서 A(71)씨가 운전하던 오피러스 승용차가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의 아내(69)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태다.

A씨 부부는 부산에 있는 친척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자택이 있는 순창으로 향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T'자형 교차로에서 미처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지 못하고 방호벽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안개가 낀 교차로를 지난 과정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술취해 행인에 흉기 공격

광산경찰, 50대 긴급체포

광주광산경찰은 26일 만취 상태로 길을 걷다가 행인 3명에게 등산용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심모(50)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광산구 우산동의 한 아파트 앞 상가 앞에서 주부 A(52)씨 등 2명과 택시기사 B(47)씨의 얼굴과 목, 등 부분을 10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알코올중독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심씨는 이날 오전에도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다가 들은 평소 안면도 없던 A씨 등에게 "내 길을 막지 마라"고 소리 친 뒤 흉기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심씨가 휘두른 등산용 흉기의 예리한 부분이 4cm로 짧아 피해자 3명 모두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로 큰 부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심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캐를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형호기자 khh@



광주 건축·도시문화 한눈에 '제13회 광주 건축·도시문화제'가 26일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렸다. 건축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문화제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열린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장교와 함께 여성 집단추행 민간인 3명 영장

경찰이 육군 소위 2명과 함께 20대 여성을 집단 추행한 민간인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여대생을 집단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특수준

강제추행 등)로 A(23)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 학군단 교육생 2명(현 육군 소위)과 함께 여대생이 술에 취하자 광주의 한 모텔로 데

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폭행하러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민간인 3명 중에는 현재 광주지역 학생군사훈련단 교육생도 포함돼 있다.

이들의 범행은 소위 1명이 지난 7월 휴

가를 나와 20대 여성을 성폭행 하면서 발각됐다. 군 헌병대가 성폭행을 저지른 소위를 조사하던 중 노트북에 보관 중이던 집단 성폭행·추행 영상을 발견한 것이다.

군 헌병대는 동영상에 등장한 소위 1명을 추가로 입건하고 A씨 등 민간인 3명의 사건을 경찰로 보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귀금속 택배상자만 골라 훔친 물류센터 직원 탈피



○~30대 택배물류센터 작업자가 귀금속이 담긴 상자는 일반

물건과 포장부터 다르다는 점을 간파하고 귀금속 택배 상자만 골라 훔치다 경찰에 탈피.


○~26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올 3월부터 광주시 광산구의 한 택배물류센터에서 근무해온 김모(30)씨는 지난 7월 2일부터 최근까지 택배 분류작업을 하면서 5차례에 걸쳐 반지와 목걸

이 등 귀금속 300만원어치를 빼돌린 혐의.

○~김씨는 귀금속이 담긴 택배 상자는 손바닥 만한 크기의 핑크색 상자에 담겨 배달된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는데, 작업장 CCTV분석을 통해 붙잡힌 그는 경찰 조사에서 "귀금속의 경우 상자가 작아 손대기도 쉽고 금은방 등을 통해 현금화하기도 편해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고 자백.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지리산 관광특구 내, 대형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객실 58개
- 시세 / 감정가 - 15억
- 용 6억 3000만원만 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공사비 4억 예상)
- 리모델링 후 20억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 매매 - 협의

토지, 6000평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 외 13필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시세 - 33억원
- 매매 - 20억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담양온천 1분 거리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오천경매

▶비법 배우실 분! 특수수건만 취급 교육비 등 1200만원

▶투자 하실 분! 공동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사무실 같이 쓰실 분!

대표 최선규

H. 010-3605-5000